

“인간과 야생동물은 모두 친척이다”

시튼의 동물 이야기 1~9

에니스트 톰슨 시튼 지음

아마도 누구나 초등학교 시절에 ‘파브르 곤충기’나 ‘시튼 동물기’를 한번쯤 손에 들었을 터이다. 곤충이나 동물들의 이야기는 흥미 이상의 강한 끌림으로 동심을 사로잡았다. 시간이 흘러 어린 시절 읽었던 책이 일작의 일부만을 추려 축약한 내용임을 뉘는게 알게 됐지만 그래도 스토리의 잔상은 영화를 본 것처럼 여전히 생생하다.

지난 100여년 넘게 많은 사랑을 받아온 동물문학의 고전 ‘시튼의 동물이야기’가 최근 출간됐다. 동물학자이자 동물문학자인 에니스트 톰슨 시튼(1860~1946)은 1893년 미국 뉴멕시코 지역으로 사냥 나간 경험을 담은 ‘커림포의 왕, 로보’를 시작으로 평생동안 자연속 야생동물의 세계를 사실적이고 아름답게 묘사한 많은 작품을 남겼다.

이번 새로 펴낸 시튼 동물이야기는 그가 남긴 많은 책중 동물에 관한 이야기만을 골라서 ▲커림포의 왕, 로보 ▲회색곰 앞의 삶 ▲위대한 신앙, 크래그 ▲탈락 산의 제왕 ▲뿔곰목 고양이 : 진정한 동물영웅들 ▲은여우 이야기 ▲엘로스턴 공원의 동물 친구들 ▲구두신은 야생 멧돼지 ▲표범을 사랑한 군인 등 9권으로 묶었다. 초판 발행 당시의 구성을 그대로 살려 그림이나 본문을 꾸민 점이 눈에 띈다. 이 가운데 ‘탈락왕의 제왕’과 ‘엘로스턴 공원의 동물친구들’은 국내에 처음으로 번역돼 소개되는 작품이다.

첫 작품은 미국 뉴멕시코주 북부의 광활한 목축지역인 커림포에 사는 늑대에게 잡혀 죽은 ‘로보’의 내용에 어린 독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에 대해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동물을 잔인하게



미국 뉴멕시코주 북부 목축지역인 커림포에 사는 늑대에게 잡혀 죽은 ‘로보’의 내용에 어린 독자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비판에 대해 “내가 글을 쓰는 목적은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사냥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내 주된 동기는, 내 가장 큰 소망은 해롭지 않은 야생동물들을 멸종시키는

100년간 사랑받은 고전 동물 이야기만 골라 펴내 ‘탈락왕의 제왕’ 등 국내 첫 번역 작품도

일을 멈추게 하고 싶다는 것이다”면서 글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밝혔다.

철학자 데카르트는 “동물은 영혼이 없는 기계”라고 정의했지만 시튼은 ‘동물들도 비록 약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나뭇잎과 같은 감각과 소망이 있는 생물체’라고 생각했다. 작가는 ‘무관심하고 적의에 찬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동물 일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 개체의 개성과 그 세계관’을 주제로 삼았다. 그런 까닭에 시튼의 동물이야기는 단순한 동물 관찰기에 그치지 않고 동물을 의인화한 생생한 묘사로 독자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끈다. 특히 화가인 작가가 그린 삽화가 동물들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더해준다.

시튼 동물이야기는 늑대, 뿔곰, 늑대, 곰, 정아생마, 양털이 개, 붉은목깃털매추라기, 갠거루쥐, 코요테, 북미쇠뿔새 등 다채롭다.

한편, 동물들의 이야기는 어릴적 읽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류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듯이 선명한 인상을 남긴다.

무엇보다 수많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인간과 야생동물은 별개가 아니라 결국 지구상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생명체임을 깨닫게 된다. “지구는 사람만이 사는 별이 아니다. 자연은 사람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사람은 자연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시튼의 말이 독자들에게 울림을 주는 까닭이다.

〈굴리·각권 1만~1만3000원〉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명랑시인의 귀촌 특강=귀촌하려는 사람들, 시골생활을 꿈꾸면서도 선뜻 도시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역으로 내 집 갖기’에 성공한 저자 남이영이 귀촌 과정을 겪으면서 얻은 노하우를 공유한다. 시골집을 구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 농사일을 하지 않고도 귀촌해서 먹고살 수 있는 방도, 시골에서 왕따당하지 않고 어울려 사는 방법까지 실전에서 겪은 생생한 고생담을 에세이처럼 풀어내고 있다.

〈세종서적·1만4000원〉

▲한국의 장관들=제1공화국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전연직 모든 장관을 총망라해 분석하고 설명한 최초의 책. 책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의 현대사를 한바탕 훑어볼 수 있다. 당시의 언론보도와 바탕으로 100여명의 장관을 설명하고 있어서, 당대의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시대상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꺼내놓고 독자가 차분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과 화합을 위한 징검다리라고도 할 수 있다. 〈티핑포인트·3만5000원〉

▲진실이 치유한다=어린시절의 학대와 폭행, 20대에 이룩한 변호사로서의 성공, 갑작스런 암 발병과 식물인간이 된 남편, 최고의 치료법을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마음의 원리와 독창적 에너지 치유의 방법. 마침내 에너지 치유 분야의 세계적인 마스터 힐러가 되기까지의 드라마틱한 이야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인 데보라 칸이 자신의 극적인 경험담과 유명 인사들을 포함한 수많은 치유 사례를 엮어 새로운 삶의 방식인 ‘에너지 힐링’을 제



시한다. 〈김영사·1만4800원〉

▲C&I : 교육과정과 수업의 탈주선=현행 교육과정과 수업의 담론구조를 살펴내게 파헤치고, 교육의 현재 좌표와 미래 좌표를 동시에 점검하는 책. 1부 교육과정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2부 교사로서 존재하기 위한 도정, 3부 학문과 경험, 그리고 그 너머의 통찰 세계, 4부 인성을 ‘평가’ 받는 위태로운 시대에서 전통의 원형적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다. 〈책인쇄·2만7000원〉

▲제시 램의 선택=아서클라크의 2012년 수상작이자,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의 2011년 최종 후보작. 제인 로저스의 대표작인 이 소설은 인신부만 골라서 공격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인류가 멸망에 직면한다는 세기말적 설정이 한 인류가 머잖아 마주할 현실인 것만 같아 두려움을 자아낸다. 화자로 등장하는 10대 소녀의 눈을 통해 사춘기 특유의 성장통과 혼란스러움에 대해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음을 울리는 힘 또한 지니고 있다. 〈비치·1만3800원〉

어린이 책

▲힐링 셀매=조선 후기 인조 때 형조판서를 지냈던 선비 이경전 할아버지가 빗돌과 한강에서 셀매놀이를 한 뒤 남긴 ‘노호 승설마기’라는 글을 어린이들이 읽기 쉽도록 쓴 그림책. 시, 산문, 동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글의 맛을 알개워 주는 시인 조은과 동화화의 멋과 맛을 잘 살려내는 그림 작가 김세현이 만나 목직하면서도 경제하게 만들었다. 〈문학과지성사·1만5000원〉

▲그대로 내 사랑스런 우리 아기는=어어와 인간 아이가 만나 서로를 알아가며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이야기. ‘딩 빈 뵤장고’로 불로라 라가치 상을 받은 가에탕 도 레루스는 어어와 인간 아이가 만나 가족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위트 있게,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책과콩나무·1만3000원〉

▲빨간 목줄의 파로=훗카이도 아동문학자가 카토 타이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소재로 쓴 작품. 원전 사고로 고향인 후



쿠시마를 떠나온 소녀 유리카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 주는 토모에 상은 ‘돈이 없는데도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다. 그녀는 진정한 행복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작가의 신념을 압축적으로 나타내는 캐릭터다. 〈아침이슬·9000원〉

▲아기 토끼가 아파요! =고양이 의사 닥터 캣과 생쥐 간호사 피너트가 아프거나 다친 동물 친구들을 치료해 주는 ‘베비베베 닥터 캣’ 시리즈.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독서 퀴즈와 그림 그리기, 말풍선 채우기, 다른 그림 찾기 등 재미있고 다양한 독후 활동이 포함돼 있다. 〈주니어RHK·1만원〉

뭐든지 잘해야 하는 사회...우리들의 강박 성향 이야기

나는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현철 지음

집착 혹은 강박은 무엇에 놀리거나 쫓겨 심하게 압박을 느끼거나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끊임없이 사로잡힐 때 쓰는 말이다.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강박 장애와 달리 강박 성향은 만 2~3세 경 성장하면서 누구나 경험해본 지극히 정상적인 심리 상태다.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누구에게나 있을



출연하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철의 ‘나는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 등 4개 챕터로 나눠 돈과

범한 보편적인 강박 성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낸 책이 나왔다.

‘무한도전’, ‘2시의 데이트 박경림입니다’ 등에 출연하며 대중들과 소통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현철의 ‘나는 늘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나는 항상 완벽해야 한다’ 등 4개 챕터로 나눠 돈과

예의, 성공, 비난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어나간다. 저자는 우리가 왜 특정 브랜드에 빠져드는지,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영되는 이유, 왜 우리 애매한 걸 누가 정해줄지 원하는지, 왜 어떤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즐기고 트위터에 빠져드는지를 포함해 무엇이 좋고 그른지 헷갈리길 반복하다 결국 주저하고 망설이는 우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우리가 집착하며 허무하게 쫓고 있는 성공과 명예, 스펙, 돈, 행복 뿐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특이나 예민한 정의와 원리원칙, 청결을 비롯해 누구보다 완벽해지고 싶고 누구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의 무의식적인 강박에 대해서도 분석한다.

또 ‘모욕이라는 날을 휘둘러 급기야 존엄의 뿌리까지 베는 ‘망나니 칼’을 정의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며 한 때 세간의 화제였던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는 가수다’를 통해 정의와 존엄의 의미도 되묻는다.

풍부한 사례와 함께 쉬운 글쓰기로 재미있게 읽힌다. ‘우리가 매일 끌어 안고 사는 강박’의 개정 초보판이다.

〈팜덤북스·1만3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p>곡성 전원주택 매매 〈전남 곡성 오곡면 압록리〉</p> <p>광주에서 50분 거리 최저가 전원주택</p> <p>섬진강, 압록역 3분 거리 (토 80평, 건 30평)</p> <p>□ 전세값으로 내집 마련 (보 5백만, 월 30만) (용 2천만)</p> <p>매가 4천200만</p> <p>☆ 원룸 추천 ☆</p> <p>①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분, 코너) (모아 A.P.T 코너자리) (1층상가, 1개, 2개 분할가능) (4층 주택) (2~3층-원룸 6개, 투룸 2개) 보 4천만 월수익 480만 (용 1억5천만) → 매가 6억8천</p> <p>②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 원룸6개) (보4천5백, 월720만) → 매가 7억8천</p> <p>③ 용봉지구 원룸 총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p>	<p>1층 상가 매매 〈광산구 월계동, 첨단지구〉</p> <p>첨단 부영1차 A.P.T.건너편 (광산 KT지사 부근)</p> <p>※ 미용실, 식당, 프렌차이즈 추천 (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p> <p>매가 1억5천만</p> <p>☆ 소액 상가투자 물건☆</p> <p>① 전남 곡성 전원주택 (토 80평, 건30평) (광주에서 50분거리) 압록역, 섬진강 부근 → 매가 4천5백만</p> <p>②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올수리 (용5천) (보1천, 월60만) → 매가 1억1천만</p> <p>③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용5천) (보5백, 월45만) → 매가 8천5백</p>	<p>8층 상가 매매 〈첨단지구, 북구 오룡동〉</p> <p>삼성전자 정문 앞 교육시설단지, 공장단지</p> <p>1층 (상가) 130평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56개 8층 (주택검사사무실) (저렴한가격 대비 높은 수익률)</p> <p>보 2억 - 월 3,000만 (용, 25억)</p> <p>매가 35억</p>	<p>법률경매</p> <p>(특수물건 추천)</p> <p>1. 동구 게임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룸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게임동 율리시 남측 근처, 재개발지역 부근 감정가 6억2천 → 최저가 4억4천</p> <p>2. 동구 학동 (근린시설) (토 114평, 건 60평) (1층-시무실, 2층-주택) 학운동 주민센터 북서측위치, 약 2m 진입로 있음 감정가 2억6천 → 최저가 1억8천6백</p> <p>3. 북구 두암동 (근린주택) (토 44평, 건118평) 북구 두암동 우체국 옆, 2차선 도로 접 ☆ 1층 점포, 2층~4층 주택 감정가 3억 5천 → 최저가 2억 5천만</p> <p>4. 서구 용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 건131평) (1층~3층 총룸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2천 → 최저가 3억2천</p> <p>5.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자리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p> <p>☆ 직원 구함 ☆</p> <p>경매 컨설팅, 부동산 배우실분 가족처럼 함께 일하실분 모집 합니다.</p>	<p>경매교육</p> <p>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p> <p>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p> <p>매주 수요일 (오전 오후반) 주말반 (오전 오후반)</p> <p>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p> <p>(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p> <p>원스톱 강의</p>
<p>010-6670-9800</p>	<p>010-7384-7800</p>	<p>010-6834-4800</p>	<p>010-6832-9700</p>	<p>010-6832-9700</p>